

이는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임. 미국이 우위에 있는 군사적 방식보다 중국이 우위에 있는 경제와 인문 및 인적 교류를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로도 해석

사드 도입과 같이 중국의 국익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응징의 의지도 전혀 없이 강함.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나친 낙관론에 기대기 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음

발행처: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발행인: 김흥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울곡관 527-2호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전화: 031-219-3861

홈페이지: <http://cpi.ajou.ac.kr>

China Watching은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국가대전략: 일대일로 전략의 수립과 집행

-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에서 "丝绸之路经济带(실크로드 경제벨트),"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에서 "海上丝绸之路(해상실크로드)" 구상을 제안함. 그리고 후에는 이를 "一带一路(일대일로)" 전략으로 지칭함

» 과거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이러한 장기적이고 세계적인 범위의 국가대전략을 구상하거나 실행에 옮길 수 없었음. 그러나 이제 중국은 강대국으로서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음

» 이는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임. 미국이 우위에 있는 군사적 방식보다 중국이 우위에 있는 경제와 인문 및 인적 교류를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로도 해석이 가능함

» 2014년 11월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구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강조함

- ① 아시아 국가가 중심임, 아시아 상호 네트워크 건설에 우선적으로 노력함
- ② 경제회랑에 기초하여 아시아 상호 네트워크 기본틀을 건설
- ③ 교통 인프라 통해 아시아 상호 네트워크 조기 실현 노력
- ④ 건설 용자를 통해 아시아 상호 네트워크 건설
- ⑤ 인문적 교류로 아시아 상호 네트워크 사회적 토대 공고히 함

對한반도 외교 : 남북한 등거리 외교에서 한국과의 관계 강화 추진

- 탈냉전 시기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남북한 등거리 전략을 통해 한반도 전체에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에 기초함.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이러한 전략기조에 중요한 변화가 감지됨

» 북한과 국가 이익에 기초한 정상적인 국가관계 수립의지 명확히 함

» 한국 중심의 통일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

» 북한의 유사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 분석 및 준비 착수

» 동북아 거점국가로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 중시

- 2016년 1월에 발생한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에 발생한 위성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로 한국 및 미국과 긴장고조 국면에서도 한중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

»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입장을 견지하였고 UN 대북제재 결의안 2270에 전격 합의를 함

» 사드 갈등 국면에서도 한국에 대한 압박보다는 미국에 대한 압박과 대화를 통해 실제 문제 해결 추진

» UN 제재를 넘어선 대북 양자 금융제재 전면 시행으로 북한을 압박

» 한국측과 경제협력 논의 지속

- 중국의 신창타이 외교가 한반도 문제에 의미하는 바는 양날의 칼과 같은 특성을 지님

» 한중 관계 개선은 시진핑 외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이며, 중국 측은 국익차원에서 이를 잘 유지하겠다는 입장이 명확함

» 신창타이 중국 외교는 중국의 국익에 입각해 남북한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중국의 국익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응하겠다는 원칙 역시 강화

» 북한이 도발을 강화하는 한 지속적으로 압박을 확대할 것임

» 중국의 새로운 태도는 한국에 더 많은 한중 협력 공간을 제공. 사드 도입과 같이 중국의 국익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응징의 의지도 전혀 없이 강함.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나친 낙관론에 기대기 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음

CHINA WATCHING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Ajou China Policy Institute
亞洲大 中國政策研究所

2016. 03. 28 <제13호>

신창타이(新常態) 시대의 중국외교

임진희 ·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정책 제언

한중 정상회담 추진

- 북핵 실험 이후 국면에서 한중 관계는 분명 내상을 입었음. 이를 무시하기보다는 상호 인지하는 것이 중요함.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대응보다는 이번 갈등을 기회로 삼아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한중 관계 현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방안이 대단히 긴요함
- 미중 전략 경쟁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중국과의 갈등 관리는 긴요함
-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한중 양국 정상이 만나 실무회담을 갖고 양 정상 사이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동시에 양국 현안들에 대해 전향적인 해결 방안을 타진해야 함. 아니면 적당한 시기를 잡아 2014년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한 실무담방 형식으로 박근혜 대통령 방중을 추진해야 함. 이를 통해 양 정상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한중간 전반적 현안의 해결을 추진함

한중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추진

- 한중 우호 기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협력임.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한중은 경제협력 모델과 사업 지원을 합의할 필요가 있음. 현재 급속히 분리되고 있는 한중 경제구조를 재설정하고, 경제에 대한 조야의 우려에 화답. 이는 중국이 제시하는 '일대일로' 전략구상의 정신과도 합치

한중 관계 현재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에서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관계" 로 격상 고려

- 여기에서 '전면적'이라 함은 포괄적이면서 동시에 모든 영역, 특히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의미임. 한국의 군 지도부 및 실무진들 중국측과의 소통과 교류 강화 방안 연구 필요
- '포괄적인' 내용은 북한의 미래 및 북핵 문제 등이 한중 전략 협력의 의제에 들어 가는 것을 의미함
- 한중 전략경제대화 설립 추진

유명무실화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사영도소조 주임간 대화 채널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 그 산하에 1.5트랙의 전략대화 체제를 신설하여 보다 유연하면서도 책임에서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상호의 전략적 관심사 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이들이 각자 상부에 보고서로 올리도록 함

중국과 대북 정책에 대한 과감한 협력 추진 필요

- 시진핑 시기의 대북정책은 국가이익에 기초한 외교(新常態 對北外交)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이는 한국에 더 유리한 조건이 창출되고 있는 것임
- 현재 북중 관계 추세가 반드시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은 이를 어떻게 남북관계에 활용할지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중국 측과 대북 정책에 있어 그리고 한반도 통일 문제에 있어 밀당, 암중모색, 도모 단계를 넘어 공모 단계로 진입할 것을 제안함

이번 갈등을 기회로 삼아 정상 회담을 추진하여 한중 관계 현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방안이 대단히 긴요함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협력임.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한중은 경제협력 모델과 사업 지원을 합의할 필요가 있음

현재 북중 관계 추세가 반드시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은 이를 어떻게 남북관계에 활용할지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문제 제기

1. 신창타이 외교의 출현

2014년 5월 시진핑 주석은 하남성 시찰 과정에서 중국의 현 경제상태와 발전방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창타이(新常态)"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함. 그 이후 현재 경제 영역을 넘어 정치, 군사, 외교 등의 다양한 영역까지 널리 적용되고 있음

- 경제 신창타이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지님 : ① 고속성장에서 중속 성장으로의 전환 ② 경제구조의 부단한 개혁 ③ 혁신 경제로의 전환
- 2014년 하반기부터 주요 언론매체와 학술논문에 "중국외교의 신창타이" 언급되기 시작함

2013년 집권 이후 시진핑은 2013년 10월 하순 주변외교 공작좌담회를 개최하여 중국외교의 전면적인 개혁신호를 보여줌

- 기존의 중국 외교는 다소 대응적이고 수동적인 함의를 지녔던 "도광양회(韬光养晦)" 및 "유소작위(有所作为)" 원칙을 견지하였음
- 현재 중국 외교는 능동적으로 분발해서 해야 할 바를 한다는 "분발유위(奋发有为)" 외교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를 중국 외교의 신창타이라 할 수 있음

현재 중국 외교는 능동적으로 분발해서 해야 할 바를 한다는 "분발유위(奋发有为)" 외교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를 중국 외교의 신창타이라 할 수 있음

2. 신창타이 중국외교의 특징

중국의 정체성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도상국" 에서 "발전중인 강대국" 으로 전환

- 중국사회과학원 쉰진(徐进)의 주장에 따르면 과거 중국의 대외외교는 "상대는 강하고 본인은 약함(你强我弱)" 전제의 "대국을 대상으로 하는(针对大国)" 외교였음
- 현재는 스스로 강대국임을 전제로 하는 "대국으로서의(我是大国)" 외교로 변화함
- 2013년 6월 제2차 세계평화포럼에서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중국 정부가 중국 특색의 새로운 강대국 외교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음

중국 외교 기조가 "도광양회" 에서 "분발유위" 로 변화함 (韬光养晦 → 奋发有为)

- "도광양회" 는 "상대는 강하고 본인은 약하다(你强我弱)" 는 인식에 근거함, 대외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발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정책기조임
- "분발유위" 란 변화한 자신의 역량과 국제적 지위에 기반하여 더 적극적으로 중국의 국가목표와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임
- 중국은 이 기조를 신형대국관계 수립, 일대일로구상 추진, 주변정세안정, 글로벌 문제 참여 등의 다양한 방면에 적용시키고 있음
- 중국은 주권과 영토 문제에서 과거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태도와 달리 국익의 "마지노선(底线)" 을 확실히 설정함. 동시에 "후발제인(后发制人)" 전략의 운용을 통해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함

중국 외교의 새로운 목표는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伟大复兴)을 실현하는 것임

- 시진핑은 2013년 10월 주변외교 공작좌담회에서 이 새로운 목표와 원칙을 제시함
- 이는 중국이 세계적 강대국이 되기를 요구하며, 중국외교는 경제건설에서 민족부흥이라는 한 단계 더 승화된 목표에 매진하라는 것임
- 중국의 위대한 부흥은 2011년 《中国的和平发展》 백서에서 발표한 바대로 평화적 발전 방식을 통해 달성한다는 것을 천명함

중국이 세계적 강대국이 되기를 요구하며, 중국외교는 경제건설에서 민족부흥이라는 한 단계 더 승화된 목표에 매진하라는 것임

3. 신창타이 중국 외교의 내용

대국외교: 새로운 강대국 관계 제의¹⁾

- 중미관계 시진핑 시기에도 가장 중요한 강대국 관계. 2013년 6월 시진핑 주석은 중미정상 회담에서 중미간 "신형대국관계" 수립을 제의함
- » "새로운 강대국 관계" 란 "불대항, 불충돌, 상호존중, 협력공영(不对抗, 不冲突, 相互尊重, 合作共赢)" 을 주 내용으로 함
- » 미국은 "불대항, 불충돌, 협력공영"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호존중"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이는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이익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임
- » 미중 간에 경쟁의 불가피성을 상호 인정하고 갈등도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초강대국으로서 상호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 중임
- 미중 양측은 현재 우발적 충돌방지와 경제 및 안보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 » 2014년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주요 군사행동 상호통보 기제(重大军事行动相互通报机制)" 및 "해·공군 조우시 행동준칙(海空相遇安全行为准则)"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 » 글로벌 거버넌스 영역에서 협력의 분위기는 더욱 명확함. 대표적 사례로 2014년 11월 선포한 《미중 기후변화 연합성명(中美气候变化联合声明)》을 들 수 있음. 그 밖에 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 아프리카 에너지 개발, 야생 동물 불법무역 근절 등의 방면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였음

주변국외교: "친·성·혜·용" 구상의 제안

- 2013년 주변외교 공작좌담회에서 중국의 주변외교 기본방침을 "이웃에게 선하게 대하고 동반자로 여기며, 이웃과 화목하고 평안하며 번영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친·성·혜·용 원칙을 구현함(以邻为善, 以邻为伴, 坚持睦邻, 安邦, 富邻, 突出体现亲, 诚, 惠, 容)" 이라 제시함
- » 시진핑 시기의 주변외교는 미중 전략경쟁이 강화되는 시기에 주변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중국의 외교적 내구성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주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중시하는 상황임
- » 적대적인 주변국은 무력을 포함한 압박을 통해 견제를 강화하고, 우호적인 주변국은 크게 혜택을 부여하고, 중간지대에 있는 주변국은 회유정책을 적극 구사하고 있음
- 2014년 시진핑 주석은 상하이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를 통해 새로운 "아시아 안보관" 주장함. 아시아 자신의 "공동건설, 공동향유, 공영(共建, 共享, 共赢)" 이란 새로운 안보의 방향을 제시함
- » 아시아 지역의 안보는 당연히 아시아 국가들이 주도할 것을 주장
- » 역외 국가의 개입을 견제하는 의미로도 해석되어 중국이 아시아판 먼로 독트린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야기함

적대적인 주변국은 무력을 포함한 압박을 통해 견제를 강화하고, 우호적인 주변국은 크게 혜택을 부여하고, 중간지대에 있는 주변국은 회유정책을 적극 구사하고 있음

다자외교: 국제 제도의 수임자에서 적극적인 제안자로 전환

- 현재 중국은 국제체제 내에서 규칙을 배우는 입장에서 제안하고 결정하는 입장으로 변화하는 과정임. 새로운 국제조직 수립과 운영을 통해서 발언권과 이슈결정 능력을 제고함
- » 2013년 시진핑 주석은 중국 지도자로서 최초 해외 순방국인 러시아에서 세계 각국이 협력과 상생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국제관계" 수립을 제안
- » 2014년 시진핑 주석은 뉴욕에서 열린 제70회 유엔 총회 일반토론 연설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타국의 합리적 이익을 배려하고,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각국의 공동발전을 촉구하는 "인류운명공동체(人类命运共同体)" 개념을 제시
- » 중국은 국제 금융영역에서 새로운 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 설립 등을 주도함
- » 양제츠 국무위원은 올해 9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경제성장과 거버넌스의 개혁에 중국이 방안을 제시하고 중국의 역량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함

1) 2015년 3월 중국주미대사 추이텐카이(崔天凯) 중국일보 기자와 인터뷰 중 중미관계의 신창타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함. "今后几个月, 如果美方又有人冒出来批评中国, 我不会感到奇怪. 我觉得这是中美关系的一种常态. 我们现在总在说新常态, 中美关系的新常态就是始终有矛盾有合作. 但合作永远大于矛盾". 미국의 데이비드 삼보 교수는 2015년 6월 기고를 통해서 중미간 경쟁은 전략, 상업, 이념, 정치, 외교, 기술 심지어 학술의 영역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것이라 말하며, 이러한 상황이 바로 양자가 순진한 낙관론보다는 상호 적응이 필요한 "신창타이" 라고 주장함.